

# 영토화·탈영토화 속에서 찾아지는 페미니즘의 관계학

-이소희·이경수 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소명출판, 2022.

염선옥

문학평론가 / 서정대학교 강사

목차

- 1 ‘이해’하고 ‘이해’ 받아야 하는 사회?
- 2 포월(包越)의 힘
- 3 영토화·탈영토화, 접속과 이탈에서 찾아지는 페미니즘의 관계학
- 4 닫힌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리부트, 다시, 고정희

생동감 없이 인생을 살아온 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망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기 위한  
 손 하나가 필요하다. ...다른 한 손으로  
 그는 폐허 더미 속에서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더 많이 보기 때문이며, 그는 살아 있었지만  
 죽어 있었기에 본디 살아남은 자이다.

- 프란츠 카프카, <1921년 10월> 19일, 『카프카의 일기』<sup>1</sup>

## 1 ‘이해’하고 ‘이해’ 받아야 하는 사회?

수많은 사유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해 못 하고, 이해받고, 이해받지 못한다. 이해하기를 강요받기도 한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는 듯하다. ‘이해’는 영어 ‘understanding’을 일본어로 번역한 말이다. ‘이해’에 해당하는 불어는 *compréhension*인데, 이는 라틴어 ‘com(함께) +prehend(잡는다)’에서 유래하였으며, ‘같이 잡는다’는 의미와 내포(포함)라는 뜻도 가진다. 따라서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보편적 개념을 ‘나도 잡고 있다’라는 뜻이 되면서, 보편타당한 것으로 정착된 하나의 큰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해’는 초월성에 속하는가. 이해한다고 말하는 현대인의 사유와 보편타당한 것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corrélation*)관계나 공존의 양식이 공모하며 자리하고 있는가.

현재 수많은 담론 영역에서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이해’의 범주에 놓이는 대신 여전히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이는 여성 혹은 ‘여성적인 것’이 ‘이해’라는 범주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간, 보편타당한 참을 적시하는 영역에서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이론적 기록은 카프카가 말한 “폐허 더미 속에서

1 프란츠 카프카, 이유선 외 공역, 『카프카의 일기』, 솔출판사, 2017, 704-705쪽.

본 것”을 기억하는 일이며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는 바로 ‘폐허’ 위에서 여성의 ‘연대’ 가능성을 기록한 하나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sup>2</sup>로 다가온다.

인식론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지식이 되려면 동일한 감각의 구조가 존재하거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이성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런 보편적 이성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인간’이라 불렀다. 그러나 인간을 모든 범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래왔는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특정인만을 위한 용어로 전용하면서 특정 개념과 사유만을 구축해오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정희는 ‘인간’을 사유하고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상가이자 언론운동가이자 시인이자 여성 해방운동가이다. 그는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의 「後記」에 “시를 쓴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비로소 나를 성취해 가는 實存의 획득 外에 아무것도 아니다./내가 믿는 것을 實現하는 場이며/내가 보는 밝히는 방이며/내가 바라는 것을 일구는 땅이다.”<sup>3</sup>라고 밝혔다. 이처럼 고정희는 ‘실존의 획득’을 위해 인간 존재에 관한 해답을 찾아갔다. 그는 ‘대문자 I’로 칭해지는 ‘인간’ 범주를 살펴볼 때 ‘여성’은 현실로부터 꾸준히 외면당한 자리 혹은 비켜선 자리에 놓여있었고 억압과 소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해간다. 보편타당한 ‘이해’의 개념은 초월적 진리도 아니며, ‘인간’은 모든 사람으로서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 시공 초월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각 시대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뿐만 아니라 고정희는 여성이 ‘남성이 아닌 자(者)’라는 타자의 자리에 놓였음을 갈파한다. 이러한 방식은 끊임없이 타자와 소수자를 발생시키는데, ‘남자가 아닌 자’가 여자가 되는, ‘어른이 아닌 자’가 아이가 되는, ‘정상인 아닌 자’가 비정상이 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인간 ‘I’의 무소불위의 능력과 지위는 끊임없이 ‘not I’를 작동해옴으로써 권위를 지켜온 비(非)보편적 개념이자 존재라는 것이다. 그의 시에는 고난과 억압, 소외되고 부정을 당한(not I)

2 이소희, 「책머리에」,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이소희 외 공저, 소명출판, 2022, 12-13쪽.

3 고정희, 「後記」,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85, 98쪽. (진한 표시는 필자)

타자의 수난사(史)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sup>4</sup>

‘이해’ 당하기 위해 참(진실)이라고 불리는 것을 머릿속에 구겨 넣기보다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푸코처럼, 고정희는 한국의 역사 속 배후 세력들을 찾아내고 현재 고통받는 주체들을 호명해나감으로써 미래 지형 속에 탄생할 주체들의 연대를 도모한다. 오랜 시간 가운데 살아남은 진실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탄생하고 쿠데타에 성공한 개념이다. 따라서 피지배자의 기록 역시 지배자와 권력자의 이익에 맞추어 보정된 것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정한 피지배 역사 속 민중의 참된 기록일 수 없다. 고정희는 가장 긴 수난의 역사를 살아낸 여성의 기록이야말로 여성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파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인간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지칭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철학이라는 역사 속에 여성은 자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데에는 시스템과 ‘장(場)’의 기준을 정하는 자리 다시 말해 이법(理法)을 판별하는 자리에 여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찰한다. 따라서 ‘장’의 기준을 정하는 남자들이 ‘인간’,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기실 그것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일이다. 그 안에서 남성 권력은 어떤 저지(沮止)도 없이 ‘지도와 달력’을 활용해온 것이다. 고정희는 새로운 지도와 달력을 그려나가자고 촉구한다. 고통받고 부정당한 수많은 ‘not I’의 목소리, 그중에서도 가장 긴 수난사를 가진 ‘소문자 i’로서의 여성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로 적어나가자고 한다. 이것이 고정희가 말하는 ‘실존의 획득’이며 그가 믿는 것을 실현하는 ‘장’이다.

## 2 포월(包越)의 힘

고정희를 감싸고 있는 세 개의 키워드는 기독교, 민중, 여성이다. 이 세 가지 세계관은 고정희의 텍스트 안에서 연대기적 관심사로 보일 수 있으나, 단절된 적 없이 상보적으로 이어져 온 관계에서 검토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시

---

4 김문주,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이소희 외 공저, 소명출판, 2022, 89쪽.

집에서 이미 그가 ‘실존’의 획득이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경험해온 모든 것 가운데 체에 걸러진 세 개의 입자로서, 그것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걸러진 본질적 요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고정희의 시적 토양에 가장 중요한 자양분으로서의 여성·민중·기독교는 ‘지도와 달력’ 위에 분절된 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운동하며 상승하는 ‘나선적 구조의 핵심 형질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sup>5</sup>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고정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구원이 억압과 고난의 주체를 향하는 민중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을 갈파하였고, 민중 해방신학으로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거두어들여 민중을 향한 담론으로 현실을 점검하며 포월(包越)해간다. 1970~80년대 민중 담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정희는 수많은 민중 담론과 민중 문학 속에 여성이 부재하고 여성의 이미지가 왜곡된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 해방의 의식으로 그는 그것을 포월해가며 실존을 획득하고 자신의 텍스트를 직조해 나갔다. 따라서 고정희가 “페미니즘 문화정치학”의 핵심 결절(結節)로서 중대한 실천적 지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sup>6</sup>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만큼 고정희는 풍부하고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의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배제된 여성을 찾아내었다. 비판적 지식인이자 언론인이기 이전에 시인으로서 그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열 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기록의 힘이 역사의 힘이자 미래의 민중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알았던 그의 시간이 개재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화』의 친구들이 2주기가 되어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을 엮어내었다.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체계적으로 문학을 논하는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 
- 5 나희덕은 고정희 시에서 핵심을 이루는 세 개의 키워드 기독교·민중·여성이라는 세 층위가 서로 연결되거나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축들 사이의 충돌과 긴장을 정신의 고유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나희덕, 「시대의 殞衣를 마름질하는 손」, 『창작과비평』, 제29권 2호, 창비, 2001년 여름, 311쪽.
- 6 이소희, 「“고정희”를 둘러싼 페미니즘 문화정치학 : 여성주의 연대와 역사성의 관점에서」, 『젠더와 사회』 제6권 1호,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6, 939쪽.

동시에 “그러한 체계적 논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sup>7</sup> 이소희·이경수를 주축으로 한 이 책은 그러한 체계적 논의를 위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반석과도 같은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록된 열여덟 편의 논문 대부분이 고정희 추모 20주기 및 30주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로서, 그의 삶과 문학 전반을 두루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을 포월해가며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영토화·탈영토화, 접속과 이탈에서 찾아지는 페미니즘의 관계학

고정희는 문학장과 출판계 등에서도 타자이자 소수자로서 고통을 겪었다. 그는 남성 중심 사회의 한가운데 살면서 보편타당한 삶의 좌표들이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병리적 현상임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하였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에는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타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네트워크로서 확장되어가는 고정희 문학의 의미가 탐구되고 있다.<sup>8</sup> 이것은 타자화된 여성을 사유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호명되는 것들을 의심하면서 그 바깥을 사유한 결과일 것이다. 나아가 푸코 방식으로 지식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살펴 유구한 역사(기록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음을 밝히듯, 고정희를 주축으로 새로운 ‘끈’을 잇는 방식을 보여준 성과이다. 여성이 기록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여성의 역사는 ‘참’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성과 가치를 모색하여 연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희는 「여성사 연구」<sup>9</sup> 연작을 통해 과거 굴레 속 여성의 민낯과 폭압의 현상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권인숙’의 형상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그리

---

7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여성해방운동가 고정희의 삶과 글』, 또하나의문화, 1993, 33쪽.

8 이경수, 「책머리에」,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이소희 외 공저, 소명출판, 2022, 16쪽.

9 「여성사 연구」 연작시는 총 6편으로 『지리산의 봄』에 수록되어 있다. 고정희, 『지리산의 봄』, 문학과지성사, 1987, 7788쪽.

고 ‘여성’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피지배층의 해방을 촉구하였다.<sup>10</sup> 마침내 「우리 붓물을 트자—여성 해방의 문학에 붙여」를 통해 ‘끈’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우리 붓물을 트자”,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백보다 더 좋은 만의 얼굴이어라/형제여, 자매여,/마침내 우리 서로 자유의 물꼬를 열어/구구구 구 구구구구.”<sup>11</sup> 그는 우리를 규제하는 만들어진 ‘구조’를 인식하였고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혼돈의 세계에 서서 그것을 재영토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적 요소들,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구조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미끄러져 나감으로써 이탈해 나가는 힘임을 인지하였다. 초월성을 극복하고 내재성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같은 내재성 사유는 고정희 이후 꾸준히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출현하였고 그 결실이 바로 이 책인 셈이다. 1부에는 ‘고정희와 여성적 글쓰기’라는 주제 아래 2011년 고정희 시인 추모 20주기 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7편(김승희, 김진희, 김문주, 김난희, 윤인선, 문혜원, 이소희)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고정희와 여성시의 실천’이라는 주제 아래 2021년 추모 30주기 학술대회에 발표된 6편의 논문(양경언, 이은영, 장서란, 이경수, 김정은, 정혜진)이 실렸다. 3부에는 ‘고정희와 문화 번역’이라는 주제 아래 20주기와 30주기 발표된 문화연구나 비교문학, 번역의 영역에서 살펴본 고정희 문학에 관한 글 5편(박주영, 정은귀, 김양선, 채연숙, 최가은)이 게재되었다. 이 책은 고정희의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고정희를 주축으로 하여 ‘실존을 획득’해가는 연대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사유할 때 더 나아가 철학적으로 검토 가능한 페미니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주기에서 30주기 학술대회의 결과물은 시대적 추세와 경향일 수도 있지만, 기존 연구를 넘어서는 확장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확인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은 페미니즘이 전문 영역을 파고들어 마침내 ‘실존의 획득’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때 ‘실존’은 들뢰즈·가타리 식으로,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통해, 틀이 없는 무수한 관계의 접속을 통해, 그 관계가 가진 역동성을 통해, 무수한 의미와 가

10 위의 책, 89-92쪽.

11 위의 책, 93-94쪽.

치가 생성되는 의미에서의 관계를 촉구하게 된다. 그 점에서 이소희·이경수가 주축이 되어 엮어낸 이 책은 그 나름의 영토화 작업이면서 동시에 ‘누스’의 세계에서 탈영토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의 산물인 것이다.

#### 4 닫힌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리부트, 다시, 고정희

지금도 여성 수난사는 진행형이다.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2015), 강남역 문지마 살인 사건(2016), 완주 및 서초동 ‘노래방 살인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2022) 등 모두가 인간의 죽음이 아닌 여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여성은 여전히 타자로서 위치한다. 고정희 시에 응답하는 것은 “마주 잡을 손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를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sup>12</sup> 세상이 계속하여 약자라는 이름으로 ‘인식의 틀거리’를 좌우할 때 여자와 아이, 노인은 평생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약자’의 자리에 위치 지우는 어떤 공모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파악해야 한다. 여성을 약자로 포지셔닝하는 의도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은 고정희는 인간과 민중이라는 개념 속에 여성이 포함되는가를 물었다. 그는 ‘원래’, ‘기존’, ‘본래’를 형성하는 이법이 여성을 끝없이 약자화하고 타자화한다고 말했다. 그가 보편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성의 위치를 위해 싸워온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이름이 아닌 ‘여성’의 이름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결국 고정희가 ‘여성 민주주의적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글쓰기를 진행해왔다는 점, 일상생활문화에 바탕을 두고 천착했다는 점은 더없이 중요한 사실이다.<sup>13</sup> 그는 a=a라는 도식이 제공하는 not a의 여성적 지위에서 a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not을 not’(금지를 금지하는) 방식으로의 모든 차별과 싸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 위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성적인 것으로 구축된 다양한 소리

12 이경수, 앞의 글, 25쪽.

13 이소희,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성 민주주의적 현실주의’와 문체혁명」,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이소희 외 공저, 소명출판, 2022, 231쪽.



를 밝히고 고통받는 목소리를 통합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작업<sup>14</sup>일 것이다. 이를 통해 금지된 것을 금지하며 닫힌 사회를 끊임없이 열어젖히는 작업이 지속되어 가기를 희망해본다.

---

14 이경수, 「고정희 시의 청각적 지각과 소리 풍경」,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 이소희 외 공저, 소명출판, 2022, 355-362쪽 참조.